



Market Index / 13일

코스피지수 ▼ 2079.01 -29.03

코스닥지수 ▼ 708.80 -13.82

유가(WTI, 달러) ▼ 61.66 -0.04

환율(원)

1USD 100¥

살매 1206.75

팔매 1100.44

1EUR 1358.68

1CNY 180.60

살매 1305.66

팔매 163.40

소주가격 잇단 인상... 일부 업체는 관망세

참이슬 이어 오늘부터 한라산소주도 6%대 올려 앞새주 동결 방침 속 제주소주 “당분간 안올린다” 음식점 등 판매업소 인상가격 받기 쉽지 않을 듯

‘참이슬’이 불을 지핀 소줏값 인상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향후 본격 인상을 앞둔 예고편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부터 ‘참이슬’ 오리지널(360ml)의 공장 출고가격을 병당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6.45%) 올렸다. 2015년 말 병당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5.62%) 올린 후 3년여 만에 인상한 것이다.

이어 제주지역 업체인 한라산소주는

14일부터 한라산 오리지널(360ml) 공장 출고가격을 병당 1114원에서 1186원으로 72원(6.46%), 한라산 올레(360ml)는 병당 1016원에서 1081원으로 65원(6.40%)으로 인상했다. 한라산소주 관계자는 “2015년 인상 이후 원부자재 가격, 제조경비, 물류비 인상 등 다양한 원가 상승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줏값인상 발표가 잇따르면서 나머지 업체들의 인상소식도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당분간 동결한다는 방침을 피력하며 예외주식하고 있다. 다만 시기상일뿐 머지않은 장래에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소비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보해양조가 앞새주의 공장출고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타 회사들이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앞새주 가격 인상을 고민했지만 지역에서 앞새주에 대한 ‘충성고객’ 등을 생각해 가격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또다른 소주업체인 제주소주는 당분간 인상계획이 없다고 뜻을 밝혔다. 제주소주 관계자는 “소주는 말 그대로 ‘서민의 술’인 만큼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상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소줏값 인상으로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가격인상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음식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판매업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모든 소주제조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인상된 가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도내 상당수의 소주 판매업소에서는 당분간 올린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 없는 가운데 일부 업소는 이후 또다시 가격이 인상될 경우 부득이하게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연립·다세대 매매가 전국서 두번째 높아

국토부 매매 실거래가 분석 서울 2.2억... 제주 2.16억원

제주지역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매매 가격이 서울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주)직방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연립·다세대 거래 중간가격(=중위가격, 이하 중간가격)은 2016년 1억6500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9년 1억4000만원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직방은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중간가격을 분기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수도권도 2018년 4분기부터는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립·다세대 신축과 구축 주택의 가격 차이는 전국적으로 차이가 커지는 추세다. 지방의 가격 격차 확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설명했다.

시도별 연립·다세대 실거래 매매

중간가격은 2019년 서울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억1600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3350만원 올랐다.

제주지역은 2015년 1억4000만원이던 것이 2016년엔 1억9000만원으로 35% 가량 뛰었다. 이어 2017년엔 1억8945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18년 2억1498만원으로 오르면서 처음으로 2억원대를 돌파했다.

제주에 이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1억4000만원이었으며, 대구 1억3100만원, 광주 1억3000만원, 울산 1억2780만원, 부산 1억1500만원으로 7개 시도가 1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시도는 1억원을 넘어서지 못하는가 하면 세종시는 4300만원, 강원도는 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연립 및 다세대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토지가격 급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양돈농협 청정배합사료공장 본격 가동

가축분뇨 냄새저감 기반 마련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가축분뇨 냄새 저감과 사료품질 향상을 위해 청정배합사료공장인 ‘냄새저감 사료첨가용 미생물제 생산시설’이 지난 1월 준공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청정배합사료공장은 가축분뇨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제를 첨가해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학과와 2016

년부터 약 3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다. 유해균, 곰팡이 생장을 억제시키는 고초균 및 유산균, 효모균 등을 사료 원료에 배합시키는 것으로 돼지 장내 흡수율을 높여 암모니아 배출 가스 등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 7억여원이 투입된 제주양돈농협 청정배합사료공장에서 현재 생산 중인 사료에는 냄새저감을 위한 미생물제가 첨가돼 생산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제주-후쿠오카 신규 취항 제주항공 7월 2일부터 운항

제주항공은 7월 2일부터 제주-일본 후쿠오카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후쿠오카 노선은 주 3회(화·목·토요일) 일정으로 운항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제주-후쿠오카 신규취

항을 기념해 7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편도항공권을 유티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소비가자 실제 지불하는 운임)을 기준으로 5만 2400원부터 판매한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와 모바일 앱, 웹에서만 할 수 있다.

판매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다.

이상민기자



VR로 면접 체험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서 구직자 및 학생들이 VR면접 체험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객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로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제주도는 면세점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다. 관세청이 국회 추경호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인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4783억원보다 58% 늘어난 7541억원,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1년 전 5792억원보다 50% 증가한 8679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2개 시내면세점의 매출 증가액을 모두 합치면 5600억원으로 정부가 내세운 2000억원 매출 기준을 크게 웃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췄지만 제주도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 부정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제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라와 롯데가 도내 면세점 시장의 이익을 독식하는 점을 거론하며 다른 대기업의 추가 진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내 대기업면세점 추가 여부 오늘 결정

제주 추가 설치 요건 충족... 道 “대기업 독식 반대”

정부가 제주지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혜를 새롭게 내줄 지 말지를 14일 결정 짓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4시 30분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

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회의 결과는 오후 6시 반쯤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대기업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한 곳은 서울과 제주를 포함해 2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지자체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증가한 지자체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특허 요건을 완화했다.

하귀2리	서흥동	유수암리	연동1.5름	토산리(급매)	와흘리	고산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계획관리(전) 2차선점할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 좋음 1억5200만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할,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북로 606, 3층

제주항공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등록번호: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2차선점, 임·과)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오동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 한림읍 용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점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복

동부 공인중개사 ☎ 010-2800-4595
064-747-5115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해안동취락지구내 주택용지 788㎡ 5억
- ※노형 6차선 점 자연녹지 2,025㎡ 52억
- ※협재금강산로인근 신축주택 556/90㎡ 3.95억
- ※수선동 저수지인근 카페용경관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조 자연녹지 3028㎡ 6.4억원
- ※하귀택지개발내 2중주거 319㎡ 4.9억원
- ※아리동기차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400만원
- ※유수암 펜션 건물488㎡ 대781㎡ 6억원
- ※유수암 2차선 번 주택확공 토지 519㎡ 2.5억
- ※중문서측 일주도로 4차선 점 토지 8,244㎡ 45억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연동2중주택 대352㎡ 주택122㎡ 11억
- ※어울 제안로인근 바다전경양호 9699㎡ 1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5,050㎡ 9.99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83㎡ 6.5억
- ※서귀포양양장 16,169㎡ 100억원

오디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심심하고 몸에 좋은 오디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몸에 좋은 오디농원**으로 오세요.

몸에 좋은 오디농원
대표 김재환 올림

연락처: 010-6614-6829

—활세앗—
반석아파트
신성아파트

- 몸에좋은 오디농원 3호
- 몸에좋은 오디농원 2호
- 몸에좋은 오디농원 1호

영평하동마을회관
영평상동마을회관
청단과학단지...